연말 분위기 실종…캐럴과 함께 사라지다

저작권 문제 해결 불구 조용한 도심…음반 발매도 실종

불황 속 마케팅 변화 영향 크리스마스 용품 매출 줄어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온 왬(Wham!)의 'Last Christmas'가 음원 사이트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당시 거리에는 이맘때쯤이면 'Last Christmas'와 같은 '시즌송'과 함께 캐럴이 울려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웠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연례 행사처럼 온 거리가 캐럴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했다. 추운 겨울 흥겨운 캐럴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매년 이맘때면 연말 분위기를 한껏 돋우던 캐럴이 언젠가부터 사라졌다. 캐럴과 함께 연말 분위기도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 2015년 겨울이다.

크리스마스를 닷새 앞둔 20일 오후 광주의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 충장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충장로 거리에 늘어선 옷가게와 카페 등에서는 가요와 팝송만 들려올 뿐 귓가에 익숙한 크리스마스 캐럴과 '시즌송'은 들리지 않았다.

거리에서 캐럴이 실종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일부 음악단체 등이 대형 백화점에 소송을 걸면서 소규모 매장들도 피해를 볼수 있다는 오해로 인해 캐럴을 틀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하자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초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에서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대형매장과 달리 중소형 영업장에서는 캐럴을 트는 문제에 대해 시큰둥한 상황이다. 캐럴이 근본적으로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장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연이은 경기침체와 마케팅 방법의 변화도 캐럴이 실종된 원인 중 하나다. 이맘때면 시청각적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진행하던 '연말 마케팅'이 사라진 것이다.

한 미용실 체인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캐럴을 틀지 않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이 몇 년간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캐럴이 사라진 것 같다"며 "10~20대 고객의 경우 캐럴이나 오래된 팝송을 즐겨 듣지도 않을뿐더러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매장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음반시장에서도 해마다 쏟아지던 캐럴 음반을 찾아보기 힘들고, 덩달아 크리스마스 용품 매출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음반 판매 업체 관계자는 "4~5년 전만 하더라도 12월이면 아이돌 가수나 기획사, 연예인들이 연례 행사처럼 캐럴 음반을 쏟아냈는데 최근에는 일부 시즌송 음반을 제외하고는 그런 음반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충장로에서 만난 김혜영(여·38)씨는 "매년 연말이면 충장로에서 캐럴을 들으면서 흥얼거렸던 기억이 있다"며 "요즘은 '어렵다'는 소리가 주변에서도 자주 들리는데,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즐길만한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고 차량 도우려다…연쇄 추돌 참변

담양서 2명 사망·9명 부상

사고 차량을 도우려고 정차한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 3대가 연이어 추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20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35분께 담양군 고서면 보촌교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권모(여·47)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차로에 멈춰섰다. 이어 1차로를 달리던 문모(36)씨가 자신의 1t 트럭을 모닝 차량 뒤에 세웠고, 뒤따르던 한모(26)씨의 승용차가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화물차가 밀리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에 서있던 모닝 차량 동승자 고모(여·54)씨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모닝 차량 운전자 권씨도 이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또 모닝 차량이 옆 차로로 밀려나가면서 2차로로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연이어 추돌했다.

경찰 관계자는 "왼쪽으로 커브가 있는 도로인데,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가 커브를 돌고나서 앞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허리수술 환자에 산소 대신 공업용 가스

순천 40대 뇌사…광주 CT검진 사망 조영제 쇼크사 가능성

순천의 한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던 40대가 산소가 아닌 공업용 가스를 흡입해 뇌사에 빠졌다.

20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8일 오전 9시께 순천의 한 병원에서 허리 염증수술을 받던 A(49)씨가 마취를 받던 중 저산소증을 보이면서 뇌사에 빠졌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산소가 아닌 용접할 때 쓰는 아르곤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기에는 아르곤이 아닌 산소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병원에 산소 가스를 배달하는 업체는 공업용 가스도 함께 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용기에 가스를 주입하는 과정과 배달, 병원측의 주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마취 의사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가스 배달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확인 결과 문제의 가스통은 공업용으로 확인됐다"며 "실수로 잘못 배달됐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진 중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서부경찰은 "CT 조영제 과민반응에 의한 쇼크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확한 사인 규명에는 4주가량 소요된다"고 밝혔다. 4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16일 광주의 한 내과의원에서 CT 검진을 받고 돌연 숨졌다.

/김형호기자 khh@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이용부 보성군수 증축 관련

경찰, 자택 압수수색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이용부 보성군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군수가 자택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자택과 통장 거래내역을 압수수색,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전임 군수 시절 건축비 7억원을 들여 신축해 호화 논란이 일었던 한옥 관사(본채 149㎡)를 게스트 하우스로 개방하고, 자신은 보성 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별도로 개인 주택을 건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 인·허가 과정과 건축비용 등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압수수색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예정돼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3차 민중총궐기 대회 지난 19일 오후 제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민주주의 광주행동과 민중총궐기 전남투쟁본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농민, 학생 등 20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해 농민 백남기씨 쾌유 기원과 노동법 개악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대통령 공약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시 폐지' 촉구 도보 행진

전남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요구하는 '릴레이 도보 대장정'에 나선다.

전남대 로스쿨은 21일 오전 9시 광주고등법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전국 릴레이 도보 대장정' 출정식을 한 뒤 호남권 제1주자로 출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광주고법을 출발해 광주지법 담양군법원까지 걷는다. 22일에는 담양에서 백양사역, 태인터미널을 거쳐 전북대학교 로스쿨 130㎞를 걸을 예정이다. 25일에는 전북대 로스쿨에 이어 원광대 로스쿨 학생들이 릴레이 도보 대장정을 이어간다. 대장정은 변호사시험이 열리는 내년 1월4일까지 진행된다. 도보 대장정에는 전남대를 비롯해 전북대, 원광대, 건국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등 16개교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

방폐물 운반선 접안…해상 운송 선적 시작

한빛원전 보관 1000드럼 실려

안전성 검사뒤 25일 전후 출항

포화상태에 달한 영광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해상 운송을 위한 선적 작업이 시작됐다.

20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폐기물 전용 운반선 '청정누리호'가 전날 한빛원전 선착장(물양장)에 접안했다. 청정누리호에는 한빛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 1000드럼(1드럼 200ℓ 들이)이 실린다.

폐기물 안전성 검사와 선적 절차에만 5일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출항 시기는 오는 25일 전후로 예상된다. 특수 제작된 전용 드럼에 실린 폐기물들은 전용 선박인 청정누리호에 실려 48시간에 걸쳐 총 843㎞ 거리인 경주 방폐장으로 옮겨진다. 내년부터 매년 2~3회 방폐장으로 옮겨지게 된다.

한빛원전 폐기물 저장고에는 현재 2만3000드럼이 저장돼 저장률은 98%에 이른다. 방폐물 이송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28일 청정누리호를 한빛원전 선착장에 접안하려 했으나, 어민들은 조업 보상 합의가 없었다며 한빛원전 앞 해상에 그물을 쳐놓고 입항을 막아섰다. 3주가량 한빛원전에 입항하지 못하던 청정누리호가 주말 사이 어민들이 그물을 거두면서 입항을 마쳤고, 지난 2년간 방폐물 해상 이송을 두고 어민과 공단 측의 지난했던 공방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의 세기가 약한 종류를 모아둔 것으로, 원전 운전원이나 보수요원이 사용한 작업복, 덧신, 장갑과 폐 필터, 폐수 같은 폐기물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실종 경찰 하룻만에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

전남의 모 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이 실종 신고 하룻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남구 원산동 버스종점 인근 도로에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38)경사가 시동이 켜진 스포티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차량 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함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8시50분께 A경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을 진행해 왔다. A경사는 전날 병가를 내고 광주 자택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최근 지병으로 수술을 받은 A경사는 평소 아내에게 "몸이 안 좋아 미안하다.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내는 "출장 가게 됐으니 아이들을 봐달라"는 A경사의 연락을 받고 귀가하던 중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었다.

경찰은 A경사가 지병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강에 빠진 차량 놔두고 집으로…3시간 넘게 수색 소동

쌍나팔

○…새벽에 졸음 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강물에 빠뜨린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10시간 가까이 방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임모(42)씨는 이날 새벽 5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영산강변 도로를 달리다가 도로 반사경을 들이받고 3m 깊이의 강물에 빠졌다가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이날 오전 11시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운전자가 물에 빠졌을 것으로 보고 3시간 넘게 일대의 하천을 수색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사고 직후 10여m를 헤엄쳐 나와 집으로 갔으며, 음주 측정 결과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5타경 10682	2	동구 학동 707 377㎡	대	266,179,26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수목포함
		동구 의재로35번길17-1 1층98.33㎡ 2층82.85㎡[주택, 미용실]제시외다용도실등18.9㎡	단독주택	266,179,260	
2015타경 14073	1	영광군 백수읍 천마길 25-3 19.8㎡ 부속건물 점미소 102.3㎡[멸실]	단독주택	4,356,000 4,356,000	건물만매각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5타경 10682	1	동구 학동 716-4 연립주택 2층 202호 136.405㎡	다세대	125,000,000 125,000,000	
[대지/임야/전답]					
2015타경 12091	1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590-11 1653㎡	전	16,802,5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590-4 1402㎡[물건번호1:현황목전]	전	16,802,500	
2015타경 12329	2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501-5 3436㎡	답	58,412,000 58,41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39 2036㎡	답	34,612,000 34,612,000	
	4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599-4 1263㎡	답	21,471,000 21,471,000	
	5	동소 602-1 1133㎡	답	19,261,000 19,261,000	
2015타경 12534	1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55-4 2684㎡	임야	91,256,000 91,256,000	
2015타경 13841	1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915 1041㎡	전	7,287,000 7,287,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5타경 13209	1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76-3 다동에이동 1,2층 101호 1,2층각160㎡	근린시설	189,000,000 189,000,000	
	2	동소 다동에이동1,2층 102호 1,2층각160㎡	근린시설	189,000,000 189,000,000	
	3	동소 다동에이동1,2층 103호 1,2층각160㎡	근린시설	189,000,000 189,000,000	
	4	동소 다동에이동1,2층 104호 1,2층각160㎡	근린시설	189,000,000 189,000,000	
	5	동소 다동비동 1,2층 101호 1,2층각160㎡	근린시설	189,000,000 189,000,000	
	6	동소 다동비동 1,2층 102호 1,2층각160㎡	근린시설	189,000,000 189,000,000	
[자동차, 중기]					
2014타경 27973	1	사용본거지:화성시 장안면 석포공단길 36[석포리] 등록번호:850(6492 차명:봉고III1,2톤 연식:2011	자동차	8,000,000 8,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2 임산주차장
2015타경 62751	1	사용본거지:광산구 장록동 평동산단2번로181 등록번호:34수3833 차명:BMW750Li 연식:2007	자동차	14,000,000 14,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2 임산주차장
[기타]					
2015타경 12329	1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501-4 1100㎡	창고용지	25,300,000 25,300,000	매각대상아닌건물 있음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1. 5.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1. 12.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지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종료시 즉결되는 즉시 반환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이러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변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선순위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개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5. 12. 2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원태